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3호 【루계 제25286호】 주체105(2016)년 5월 2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강석주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강석주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과 1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온갖 도전과 장애를 과감히 뚫고나가며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국제방송망, 일본의 교도통신,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트락또르의 기술적성능들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제작한 전기기관차, 고기배, 5 000t급무역짐배를 직관물을 통해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는 전시장에 출품된 기계제품들은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조선이 살아갈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고 하시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북조선산 자동차와 뜨락또르 등이 전시되여있는 곳을 돌아보시면서 국가지도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북조선의 힘을 백방으로 다지는 위력한 무기로 밝히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조선의 김정은위원장께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시였으며 수입병을 뿌리뽑고 수입병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마음에 드는것은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을 다른 나라의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것이 아니라 조선식으로 제작한것이라고 평가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청년망,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슬로벤스꼬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슬로벤스꼬준비위원회가 최근 브라찌슬라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협회 위원장인 슬로벤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완 드락슬레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리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그 언제나 뵙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온 누리에 힘있게 과시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끝없이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꿈결에도 뵙고싶던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들은 조국을 떠나면서 아버지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싶어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먼저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의사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한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들은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35년간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무궁번영할 민족의 휘황로운 앞길을 환히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원수님 계시여 이 세상 천지가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광풍들이 덤벼들어도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끄떡없고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필승의 신념을 백두산악의 억년암반처럼 굳게 간직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억척불변의 모습,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된 백두산대국의 장대한 모습을 심장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나날에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해외동포들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주시고 뜨겁게 사랑해주시는가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조국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당 제7차대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신것만도 크나큰 영광이고 더없는 행복이온데 과분하게도 국빈들만 드는 초대소에 들도록 해주시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을 숙소에 파견하여 저희들을 먼저 축하해주시며 불편한데는 없는가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실 때 저희들모두는 뜨겁게 고패치며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영광의 주석단에 내세워주시고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축하문도 올리도록 해주시였을뿐아니라 전체 재중동포들의 충정의 마음어린 축기를 몸소 보아주시면서 우리 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의 건강을 념려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겨레, 전세계가 지켜보는 력사적인 당대회장에서 한 해외동포조직책임자의 병상태까지 물어주실줄은 꿈속에서조차 생각못하였던 저희들이였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감격과 강렬한 행복의 격파에 저희들은 목이 꽉 메여 만세도 부르지 못하고 쏟아지는 격정의 눈물도 걷잡지 못한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우러르고 또 우러렀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우리 해외동포들의 삶의 전부이시며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은 전체 해외동포들, 아니 온 민족이 안겨살 위대한 태양의 품입니다.

저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고마움의 큰절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들은 미래과학자거리며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건설장 등 내 조국땅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화창한 5월의 이 봄날처럼 활짝 꽃펴나고있는 모습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받아안았습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제재》소동, 《인권》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우리 조국이 주저앉기를 고대하고있지만 조국인민들의 얼굴은 너무도 명랑하고 즐거웠으며 발걸음은 너무도 씩씩하고 활기에 넘쳐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솟구쳐오르는 조국의 모습에서 온 세상에 울려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를 들었고 자위로 만장약된 수소탄의 폭음에 최후의 비명을 지르는 적대세력들의 가련한 몰골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연설을 자자구구 심장깊이 새겨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내 조국의 강국건설을 받들어나가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드높은 결의로 세차게 맥동치고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삶의 주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 정해놓고 살아가고있는 우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하늘땅이 뒤집힌대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주체조선의 존엄높은 해외공민조직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자각하고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고 중국 동북3성의 항일혁명전적지와 사적물들을 충정다해 보호관리해나가겠습니다.

조국을 떠나갈 시각이 다가올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 이역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105(2016)년 5월 20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일동 올립니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자

당의 구상따라 사회주의문명국설계도를 펼쳐간다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려명거리를 비롯한 수십개 중요건설대상설계에 적극 기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로서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대학에서는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 기간에 대학에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과 려명거리건설, 평양시의 체육촌건설, 미림섞기와공장건설, 평양무궤도전차공장개건과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 등 수십개의 중요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에서 크게 한몫하였다.

충정의 70일전투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살림집형성안을 비롯하여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올린 180여건의 건축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그대로 건설하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축설계부문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설계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으로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건설대상들에 대한 설계에서도 권위있고 관록있는 건축설계집단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교원, 연구사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려나갔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서는 기념비적건축물들에 대한 설계에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서 건축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을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을 담아 수많은 전시형성안과 그에 따르는 기술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시공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개건을 위한 설계와 시공지도를 담당한 건축설계연구소와 건설기계공학부의 설계집단은 여러달 걸려야 한다던 80여건의 실내형성안과 많은 기술설계도면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새로 일떠서는 미림섞기와공장의 건축형성과 공정설계를 맡은 건축대학과 건축재료학부, 건축과학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은 철야전투를 벌려 건축형성과 생산공정설계, 설비조립 등 공장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갔다.

전투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여 건축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근 한달동안 낮과 밤을 이어가며 전투를 벌려 농기계생산과 련관된 전국의 19개 공장들의 개건과 청년두단종어사업소의 개건을 위한 건축형성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평양시의 체육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건축설계연구소와 건축과학연구소를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수십건의 설계과제를 한주일만에 완성하였으며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개건전투장에서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설계도 다그쳐 개건공사를 앞당기고 올해 첫기 야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자연박물관의 전시형성설계와 기술설계를 맡은 국토환경보호대학의 교원들과 건축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방대하고 복잡한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건축대학의 교원들은 박물관의 조형화, 예술화를 위한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준공의 날을 앞당겨나갔다.

건설공학부와 건설경영학부의 교원들이 평양시의 유희장들에 달려나가 수십개 유희시설들의 안정성과 정상운영을 위해 콤퓨터모의실험을 진행하고 보수보강대책을 세워주면서 열정을 바쳐갈 때 도시경영대학에서는 전국의 주요고속도로들의 수평화, 원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대한 기술설계도면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처럼 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70일전투의 낮과 밤을 창조와 탐구로 이어가며 수십개대상들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건축재료학부와 건설기계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비소성법에 의한 다기능성마감건재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년간전투계획을 70일전투기간에 완수할 높은 목표를 세운 건축대학과 건축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교원, 연구사들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대학적으로 10건의 중요과학연구과제들이 태양절까지 완수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건축재료학부의 연구집단은 겨울철조건에서도 콩크리트치기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수배의 방동제, 급결제를 생산보장하여 언제공사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종 화강석세척제와 착색제를 개발하여 여러 중요대상건설에 도입한 성과 등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이룩한 성과들은 수없이 많다. 이 과정에 수십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지난 한해동안 제출된것과 맞먹는 학위론문을 완성하였다.

70일전투기간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방법개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 등 교육사업전반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창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 그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끓어넘치는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고귀한 충정과 헌신의 땀방울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들이다.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들은 우리 당의 구상을 언제나 앞장에서 실현해나갈 신심드높이 오늘도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과일보관고 건설

618건설돌격대에서

청명아래 고산땅에 승리의 5월을 빛내이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 태어났다.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불길높이 충정의 철야진군을 힘차게 다그쳐온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고산과수종합농장에 현대적인 과일보관고를 건설하여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과일보관고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관철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이들은 자재보장으로부터 시공, 설비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일판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건설을 맡은 평안남도, 함경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 변치 말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강력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갔다. 이들은 이 영예로운 전투에서 모두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려는 열의밑에 련대적혁신과 집단적경쟁열풍을 전례없이 세차게 일으키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과일보관고건축공사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전력공업성, 체신성련대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중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령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철저관철하려는 굳은 각오를 안고 공기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배전반을 비롯한 설비조립과 통신망형성작업을 다그쳐 건설기일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만 지니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세울 드높은 열정으로 돌격전을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부령지구에 일떠세운 과일보관고의 건축면적은 4 500여m²이며 과일보관능력은 수천t으로서 종전 보관고능력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선별장, 보관실, 종합조종실 등으로 이루어진 이 덩지큰 건물에는 가공기지에 보낼 과일이 보관되게 된다.

과일보관고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당의 은정이 뜨겁게 슴배여있는 과일을 잘 보관할수 있는 조건들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갖추어져있다.

과수밭에서 운반해온 과일들은 먼저 선별공정을 거치게 되여있다. 그늘진 서늘한 선별장에서의 선별과정에 나무에서 딴 때로부터 운반까지의 기간에 더워진 과일들을 식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기계적방법으로 식히는데 소비되는 에네르기를 절약하여 결국에는 보관원가를 낮출수 있다.

선별한 과일들은 능력이 각이한 10여개의 보관실에 보내지게 된다. 종합조종실에서는 수감요소들과 감시카메라를 통해 보관고운영실태를 실시간감시하면서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여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현대적인 과일보관고를 건설한데 만족하지 않고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길에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움으로써 고산땅에 깃든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갈 충정의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모내기전투 시작, 기세좋게 성과 확대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의 협동벌들이 모내기전투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은정속에 올해 농사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기쁨을 안고 시작부터 모내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적기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전투조직과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정주시 신천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모내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게 하였다.

모내기전투에서는 박천군이 앞서나가고있다. 군에서는 모판관리공들이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도록 하고 써레치기를 한주일이상 앞세워 매일 계획보다 많은 논면적에 모를 내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신의주시 토성, 연하협동농장, 룡천군 신암, 장산, 룡송협동농장, 염주군 룡북, 내중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강냉이밭애벌김매기를 끝낸 기세로 력량을 집중하여 모내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정주시 신천, 남호협동농장,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장성의 예비를 과학농사에서 찾고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낼 열의에 넘쳐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특히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며칠동안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모내기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내밀고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사상사업을 침투식으로 들이대여 협동벌마다에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배우들,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모내기전투장이 들썩하게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도의 직외강연강사들도 협동벌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함께 하며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들이대고있다.

도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모내기전투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취임식에 참가

【말라보 5월 20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20일 수도 말라보의 씨뽀뽀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아프리카지역의 고위인사들, 명예손님들, 이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 적도기네의 부대통령들, 정부수상, 국회 상하원 의장들, 의원들, 각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취임식에서는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이 국기앞에서 경의를 표시한 다음 취임선서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대통령을 축하하며 적도기네인민의 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한편 김영남동지는 19일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대통령이 마련한 연회에 초대되였다.

조국번영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천만년 빛나리

천지개벽의 새 력사 전하는 락원의 강-보통강

온 나라가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벅찬 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보통의 상식과 기성의 관례대로 하면 50년 지어 100년이 결릴수도 있는 강성국가 건설의 전략적과제들을 새로운 조선속도인 만리마속도로 최단기간내에 관철하고야말 불같은 의지가 천만의 심장에서 세차게 높뛰고있다.

자기 세대가 책임진 혁명임무를 어떤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완수해온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빈에 우리 인민이 멸쳐온 긍지높은 전통이며 기질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선의 진국의 첫삽을 뜨신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에서 더욱 후덥게 느낀다.

강산을 킬들이는 천만군민의 비상한 정신과 힘의 밀루리도 바로 70년전 여기 보통강반에서 시작된것이 아니였던가.

지금도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솟아있는 봉화산에 올라 천지개벽된 평양시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위대한 수령님의 초소를 높이 받들고 해방후 대자연개조의 첫 사업으로 진행한 보통강개수공사가 오늘까지의 70년력사에 얼마나 희한한 전변을 가져왔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은 부풋해진다.

보통강은 지난날 일제의 강점하에서 우리 인민이 겪어온 모든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였다.

무섭게 범람하는 물우에 비껴흐른 원한의 눈물은 그 얼마였던가.

조국의 산수를 노래하고 평양의 풍치를 노래한 옛 시짐들에서 보통강에 대한 시 한수 찾아보기 힘든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보통강은 문인들에게서 정서적인 시 한구절도 받을수 없었던 불행과 재난의 대명사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신 이듬해에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그때로부터 보통강반에는 인민을 위한 전변의 새 력사가 금이치기 시작하였다.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거연히 솟은 봉화산에서 아래를 굽어보면 두 줄기의 아름다운 보통강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 두줄기가 합쳐지는 함수목이 있는 곳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잊지 못할 그날 흰 와이샤쯔에 검정조끼를 입으시고 뜻깊은 개수공사의 첫삽을 힘차게 박으시던 젊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렷이 안겨와 격정을 금치 못해한다. 삽파 질통을 지고 공사장으로 떼쳐나온 시민들을 향하여 격동적인 격려사를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어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옷깃을 여미군 한다.

그날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35(1946)년 5월 21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에서 하신 격려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써 민주주의 새 조선건설에 기여하는 첫 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몸소 뜨신 보통강개수공사는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우에 더해진 자연재해로 하여 가슴속깊이에 맺혀있던 원한과 슬픔의 응어리를 통채로 가시는 재생의 첫 자욱, 애국의 첫걸음이였다.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에서 신룩이 짙어가는 보통강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추억의 노를 젓는 우리에게 보통강혁명사적지 강사 김희숙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방직후인 주체34(1945)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통강기슭을 돌아보시면서 수행한 일군들에게 보통강반사람들의 한심한 생활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들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진행하여 이 교장을 락원으로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사를 발기하신데는 깊은 의도가 있었다. 물론 새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해마다 범람하는 평양시의 큰물피해대책부터 세우는것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보통강개수공사는 단순히 큰 물피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자는데만 그 목적이 있지 않았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인재도 식량도 자금도 부족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새 민주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전체 조선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들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보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가슴끓이며 곧 보통강개수공사준비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너무도 아름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였다. 일제놈들은 저들의 군사시설, 교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15년을 목표로 공사를 벌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몰았지만 얼마 자리도 내지 못한채 패망하고말았다. 그만큼 보통강을 다스리는것은 참으로 방대한 어려운 공사였다.

주체35(1946)년 4월초 어느날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계도면도 료해하시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현장들도 돌아보신 다음 공사의 규모와 방향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제서야 눈앞이 트이여 기뻐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공사를 언제까지 끝낼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신심을 가지고 일제놈들은 5년을 계획했지만 3년동안에 끝내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년도 길다고, 3년전에 큰물이 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평양시민들의 애국적 로동으로 장마철전에 공사를 끝낼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당 및 인민정권기관앞에 나서는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공사지휘부를 조직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에 참가하시여 력사적인 격려사를 하시고 보통강과 서로천이 합쳐지는 제일 어려운 작업장으로 가시여 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오늘이 정말 좋다고, 오늘 우리의 땀은 인민을 위해 흘리는 땀인데 얼마나 좋은 땀이요라고 하시며 잠시의 휴식도 없이 작업을 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흘리는 땀!

얼마나 가슴뜨거운 교시인가.

한삽한삽의 흙을 뜨실 때마다 흘러내리는 그이의 땀방울, 그 무수한 땀방울들에 의해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금수강산이 더욱 풍치수려해지고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리라는것을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시여 몸소 첫삽을 뜨시였다는 소문은 온 평양시내에 퍼지였다.

평양시민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공사장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왔다. 로동자, 농민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무원, 학자, 예술인들도 떨쳐나섰다. 각계각층 평양시민이 그렇게 굳게 뭉쳐 공동로동에 열성을 내여 멸쳐나선것은 처음 있은 일이였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새 조선의 당원들이 서 있었다.

보통강개수공사가 끝나가고있던 어느날 새벽에 있은 일이였다. 갑자기 쏟아지는 무더기비로 제방의 한 쪽구간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그때 한 청년당원은 제방둑을 지켜내는 투쟁과정에 목숨까지 바치였다.

당시 공사지휘부에서는 이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당장 있게 될 보통강개수공사완공 경축대회의 밝은 분위기에 어두운 그늘이라도 던질가보아 소문도 못내게 하고 장례도 조용히 치르려고 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게 노하시여 인민에 대한 판점이 들려먹었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장례할것이 아니라 그의 영웅적희생에 대하여 신문에 크게 내고 장례도 평양시민장으로 하여 세상이 다 알게 하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그 청년당원과 영결하는 성대한 시민장이 거행되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낸 조문이 《정로》에 실리였다. 이것은 민족사에 있어보지 못한 우리 나라의 첫 인민장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지도되는 현지지도와 그이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이런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봉화산의 허리가 잘라져 강줄기가 돌려지고 수km의 뚝이 쌓아지게 되였다. 일부 사람들이 적어도 15년이 걸려야 한다고 하던 보통강개수공사는 예정기일보다 15일 앞당겨 단 55일동안에 완공되였다.

그때에 평양지구에서는 많은 무더기비가 내렸다. 그러나 수도시민들은 개수공사의 덕으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보통강은 자기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모시켜 왔는가.

우리는 강변에 서있는 사연깊은 두그루의 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전후 이곳에는 나무라고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이곳에 나오시여 외롭게 서있는 이 두그루의 나무를 보시고 그것을 잘 보존관리하며 강가에 수양버들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두그루 나무는 오늘도 싱싱하게 자라고 강변에는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져 보통강의 풍치를 한껏 돋구고 있는것이다.

수삼나무, 넓은잎정향나무, 홍메가 인상적인 하나의 자연식물원을 련상케 하는 아름다운 어머니품, 귀여운 아이들을 태운 고운 꽃배며 목음속에 산뜻하게 들어앉은 돌의자들…

파연 여기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옛 토성랑의 눈물겨운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젊은 녀성들이 아기의 걸음마를 떼여주는 그 자리가 해방전 물란리에 귀여운 어린 자식을 잃은 불행한 어머니가 목놓아울던 자리일수도 있음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보통강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겪어온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깊이 새겨안으시고 그것을 가시여주시느라 헌신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들이 그 물결우에 소중히 비껴있는것인가.

주체49(1960)년 11월의 어느 일요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농사차비에 쓸 자급비료생산의 불길을 지피시기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함께 보통강기슭에서 일관을 크게 벌리신적이 있었다. 휴식시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방후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매일과 같이 개수공사장에 나오시여 일하시던 그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보통강을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차넘치는 락원의 강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실 원대한 구상이 자리잡고있었다.

보통강기슭의 그 어느곳에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령도의 자욱이 무수히 새겨졌다. 그 로정을 따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공원과 유원지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전후시기 반당종파분자들이 남긴 오물을 쓸어버린 터전우에 멋찐이 창광거리가 로동당시대의 걸작품으로 우뚝 솟아났다. 해방전에는 큰 거리라고는 없던 보통강기슭에 오늘은 천리마거리, 경흥거리, 붕화거리, 불은거리와 같은 현대적거리들과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창광원과 빙상관, 청류관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너도나도 붓을 들어 보통강을 노래하고 작품에 담고있다.

우리는 보통강반의 아름다움을 화폭으로 옮기는 한 미술가를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담고담아도 다 담을수 없는 보통강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보통강을 세상에 높이 자랑하고 빛내이는것은 공민적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사람들이여, 보통강반의 아름다움뿐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70년전 5월 21일과 잇닿아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준 혁

대자연개조구상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려

주체35(1946)년 4월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 안주군(당시)의 책임일군 및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에 대한 열두삼천리벌 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 하시면서 물이 없어 고생하는 이곳 농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신의 뜨거운 진정을 터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곳 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청남관개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이 공사는 안주군과 평원군을 포괄하는 수만정보의 열두삼천리벌에 물을 대주게 될 대규모의 자연개조공사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관개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기술자도 부족하며 자재와 자금, 로력도 부족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청남관개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떨쳐나선다면 청남관개공사를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공사장을 찾고찾으시며 청남관개공사를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숭고한 조국애

이 벌거숭이로 되였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산들을 나무가 무성하고 풍만한 자원을 가진 산으로 전변시키면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애국심을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나무를 심으시고 자신께서 드셔야 할 한모금의 물마저 애이린 나무에 부어주시였다.

일제에게 상처입은 조국땅에 푸른 내릴 나무가 상할세라 소중히 다루시며 자신께서 드셔야 할 한모금의 물마저 애어린 나무에 부어주신 우리 수령님.

털벗은 조국강산에 술의 바다가 설레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는 이처럼 숭고한 조국애가 깃들어있었다.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국토관리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시고 국토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8(1949)년 2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소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도로와 강하천 관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더 잘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국가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국토관리사업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전 광 남

크나큰 감격의 분출

주체41(195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엄혹한 시련의 시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이 자리잡고있던 순천군 백전리(현재의 백송리)를 찾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게 된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감격에 넘쳐 환호를 올리였다.

이날 교직원, 과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한 과학자를 돌아보시며 전쟁이 끝나면 서해안에서 바다를 내밀고 간석지를 개간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과학자는 얼른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너무나도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문제를 제시하시였기때문이였다.

흥분으로 젖어드는 가슴을 안고 서있는 과학자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서 해안간석지개간사업에 인차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눈경지로 개간할수 있는 간석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간석지조사사업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대학교원들과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포화속에서 간석지개간의 원대한 구상을 받아안은 교직원, 과학자들의 가슴속에서는 크나큰 감동이 구름처럼 피여났다.

그것은 나라가 있고 명토가 있고 인민이 있는 한 그 어떤 난관도 시련도 반드시 뚫고나가 승리할수 있다는 위대한 신념, 그 어떤 뇌성벽력에도 드높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나가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걸출한 위인상에 대한 크나큰 감격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수필 건국의 첫삽

머칠전 어느 한 건설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현장방송선전차에서 가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울리였다.

…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

정서적인 노래의 선률에 심취되여 따라부르느라니 문득 가슴을 치는 생각이 있었다.

빈터우에서 뜨신 건국의 첫삽!

조용히 다시 불러볼수록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며 지창한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지략한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던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몸소 뜨신 건국의 첫삽, 그것은 날로 륭성번영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오늘을 안아온 애국의 첫삽이였고 우리 인민에게 제힘을 믿고 일떠서면 그 무엇이나 다 해낼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의 억센 나래를 펼쳐준 창조의 첫삽이였다.

첫삽은 천지개벽된 보통강반과 더불어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을 이 땅에 펼쳐놓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뜨신 그 첫삽이 온 나라 강과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키고 수많은 강줄기들에 인민의 행복을 더해주는 발전소와 갑문들, 유원지들이 일떠서게 하였다고 생각하니 조국번영의 시사시가 엮어지던 잊지 못할 나날이 소중히 안겨왔다.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문득 되새겨졌다.

주체62(1973)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찾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그때 우리 인민들의 사기가 아주 높았다고, 전후에도 그런 기세로 투쟁해서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시여 일하시던 그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보통강을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차넘치는 락원의 강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실 원대한 구상이 자리잡고있었다.

보통강기슭의 그 어느곳에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령도의 자욱이 무수히 새겨졌다. 그 로정을 따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공원과 유원지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전후시기 반당종파분자들이 남긴 오물을 쓸어버린 터전우에 멋찐이 창광거리가 로동당시대의 걸작품으로 우뚝 솟아났다. 해방전에는 큰 거리라고는 없던 보통강기슭에 오늘은 천리마거리, 경흥거리, 붕화거리, 불은거리와 같은 현대적거리들과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창광원과 빙상관, 청류관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너도나도 붓을 들어 보통강을 노래하고 작품에 담고있다.

우리는 보통강반의 아름다움을 화폭으로 옮기는 한 미술가를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담고담아도 다 담을수 없는 보통강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보통강을 세상에 높이 자랑하고 빛내이는것은 공민적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사람들이여, 보통강반의 아름다움뿐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70년전 5월 21일과 잇닿아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준 혁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고 강석주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강석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1일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객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대외사업부문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당과 국가의 대외정책실현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혁명전사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안고 조의식장인 서장회관을 찾았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성, 중앙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명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에위병들이 고인의 명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고 강석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고 강석주동지의 령구를 찾아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강석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1일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서장회관에 안치되여있는 고인의 령구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명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에위병들이 고인의 명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손님들은 외교단, 무관단의 명의로 된 화환들을 진정한 다음 수령의 자욱이 어떻게 시작되였는가를 력사의 진실로 말해주는 불멸의 기념비적형상이다. 이 땅의 천만의 심장들을 애국의 넋으로 채워주는 영원한 불씨이고 조국번영의 강위력한 추동력인것이다.

우리 인민은 몸소 삽을 드시고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70년전 건국의 첫삽을 뜨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지략한 영상을 경건히 우러렀다.

절세의 위인들의 그 위대한 헌신이 있어 선군조선의 번영하는 오늘이 있고 아름다운 래일이 있다는것을 잊지 못할 건국의 첫삽은 지금도 뜨겁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 건국의 첫삽에 담겨진 숭고한 뜻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워가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담고 노래는 계속 울리였다.

…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

본사기자

당대회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더욱 심화시키자

학습전투조직과 지도를 화선식으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수도의 대동력기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전례없는 학습열풍이 몰아치고있다.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불씨가 되여 지펴올린 학습열풍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적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룬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련속생산단위의 특성에 맞게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전투장을 학습마당으로, 모든 계기를 학습시간으로 전환시킨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위원회는 우선 당일군들이 로작의 기본정신과 전반사상을 폭넓고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을 주요생산전투장들에 파견하여 력사적인 보고의 진수를 대중의 심장마다 깊이 새겨주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당책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대회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열생산1직장 전투원들을 찾은 련합기업소 당위원장 박창범동무는 력사적인 대회보고에서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어 1호보이라대보수작업을 진행하고있는 열설비보수사업소 종업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대회보고에 밝혀진 전력공업부문 과업을 구절구절 새겨주고나서 긴장한 대보수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수 있도록 보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토의해나갔다.

4호터빈발전기대보수현장에 내려간 당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동무 역시 터빈보수직장 로동자들에게 대회보고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파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출데 대한 부분을 해설해주면서 대보수를 다그쳐 끝내자고 호소하였다. 대회보고의 정신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긴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터빈발전기대보수에서 제일 컬린 문제였던 과열기교체와 접지불량요소퇴치를 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보수를 제기일에 끝냈다.

이런 화선식학습열풍은 어디에나 나래쳤다.

1호터빈발전기보수전투장에서는 대회보고의 정신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현실과 결부하여 구수하게 이야기해주는 지배인의 화선강의가 진행되였고 윤탄직장전투장에서는 콘베아보수를 앞세워 보이라들에 석탄을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와 결부시켜 로작의 자자구구를 새겨주는 당일군의 참신한 정치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어느 일터나 학습전투장이였다. 말그대로 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전투장마다가 그대로 력사적인 보고에 대한 학습마당으로 전환된셈이 되였다.

당위원회는 종업원들을 당대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거점들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뜻깊은 대회장에서 돌아온 다음날 새벽 당책임일군이 찾은 곳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새로 꾸린 과학기술보급실이였다. 원격강의실에서 학습에 열중하는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이며 전자열람실의 열성독자들을 만족하게 돌려본 당책임일군은 련합기업소 기술발전과장을 비롯한 보급실운영성원들에게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과학기술강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당면하게는 당 제7차대회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데서 과학기술보급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

당책임일군이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은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 새로 꾸린 보급실이 로동자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있었고 당면하게는 대중집합장소인 보급실을 통하여 당 제7차대회 로작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는데 있었다.

당책임일군의 로작해설강의에서 큰 충격을 받은 원격교육대학 지도교원, 과학기술보급원들은 찾아오는 종업원들속에서 현대적인 전자설비들을 리용한 로작원문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로작의 진수를 되새겨주는 해설사업도 진행하였다.

당위원회는 모임, 회의 등 여러 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력사적인 대회보고의 사상을 깊이 인식시키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총정의 70일전투총화를 위한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그리고 장마철생산대책을 세우기 위한 직장장들의 협의회시작전에 당책임일군이 일군들의 대회보고내용인식정형을 료해하고 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일군들이 앞장설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강하게 내민것이 대표적실례이다.

당위원회가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로작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즐겨한것은 당초급일군들,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였다.

우리 당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제때에 신속히 전달침투하는데서 당세포위원장들과 선동원들은 가장 기동적인 력량이라고 말할수 있다. 언제나 대중속에 있는 당세포위원장, 선동원들의 한번의 해설, 한번의 선동은 참으로 큰 감화력을 가진다.

초급당조직들에서 당세포위원장, 선동원들을 무장시키는 사업을 앞세우도록 한 당위원회는 당 당지도원들이 단위에 나가 절린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학습진행정형을 실천과 결부하여 료해하고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도록 대책을 세웠다.

열생산1직장 1교대 당세포에 나갔던 당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철동무는 교대작업이 진행되는 조작실의 벽면에 로작의 기본체계, 전력공업부문 과업 등을 해설한 직관물을 만들어 제시하여 로동자들이 늘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줄데 대한 문제를 뒤겨주어 당세포가 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터빈직장 담당기사실 당세포에 나가서도 선동원의 역할을 높여 당세포가 련합기업소적인 로작학습에서 단연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위원회는 이 당세포들의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도록 일반화사업을 따라세웠으로써 온 기업소안에 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화선식학습열풍으로 총공격전의 발절음을 힘있게 내짚도록 한 이곳 당위원회사업을 높고 우리는 배워야한다.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련합기업소가 이룩할 승리를.

본사기자 김 향 란

자자구구 새기며 더 높은 목표를

강서구역당위원회 일군들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강서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첫걸음이 좋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며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론바람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구역당위원장 강동혁동무가 력사적인 당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을때였다. 그는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당대회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던 크나큰 흥분과 격정에 대하여 이렇게 허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대회보고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실 때 나의 가슴은 막 터지는것만 같았다. 자자구구 새기면 새길수록 구역이 나아갈 앞길이 환히 내다보였다. …

그러면서 그는 구역의 모든 당일군들이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강서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첫걸음이 좋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며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론바람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구역당위원장 강동혁동무가 력사적인 당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을때였다. 그는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당대회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던 크나큰 흥분과 격정에 대하여 이렇게 허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대회보고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실 때 나의 가슴은 막 터지는것만 같았다. 자자구구 새기면 새길수록 구역이 나아갈 앞길이 환히 내다보였다. …

그러면서 그는 구역의 모든 당일군들이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고 당대회결정관철에로 대중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우선 력사적인 로작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을 짤 짜고들었다.

물론 지난 시기 구역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이 제시되면 주판부서인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기본으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군 하였다.

하지만 이번 학습전투작전은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했다.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부터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대회에서 제시하신 로작을 자자구구 파고들며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 기수가 되고 불길이 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력사적인 결론, 개회사와 폐회사에 대한 학습에 힘을 넣어 자신들을 철저히 무장하였다.

그와 동시에 로작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높은 목표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보다 심화시켜나갔다.

강정칠, 박춘덕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문제,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문제, 특히 시, 군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정책관철의 기본전구답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힘을 넣어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갈데 대한 일군들

내용 등을 자자구구 학습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전투목표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 과정에 구역의 연혁소개실과 행도업적단위들의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롭게 꾸리며 강서분무기공장과 태성목화전문협동농장의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다그치고 5천능력의 질좋은 물거름탕크를 리용한 비료생산기지를 건설하며 강서려관과 온덕원을 비롯한 편의봉사망들을 개건하고 기양동지구의 200여세대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골탕크를 제작하는것과 같은 방대한 목표들이 세워지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학습과정을 전투목표수립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조직부 일군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워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킬 작전을 세웠으며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우리 당의 침입식사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구역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어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목표들을 세웠다.

자자구구 새기며 더 높은 목표를!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비상히 앙양된 이곳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진위적인 학습기풍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새로운 혁신안들을 찾는 과정으로

신의주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

신의주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당 제7차대회 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적 량식을 얻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혁명투쟁의 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을 잘해나갈수 있습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당대회보고를 깊이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당대회보고에 접하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독보, 해설담화를 통하여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에서 제시된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철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들을 심화시켜나가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특히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경험을 적극 살려 기관차수리정비를 잘하기 위한 방도를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찾아나가도록 하였다.

대장 송청산, 초급당위원장 맥영찬, 참모장 차경일동무들은 준비중대를 비롯한 기관차수리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전투단위들에 내려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의 내용을 해설해주면서 모두가 떨쳐나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자고 호소하고 그들과 함께 기관차수리를 잘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기관차대에서는 주수리차고 보조건물을 완공할데 대한 문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내연기관차의 기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수리할데 대한 문제들이 기본초점으로 되여 토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였고 그 해결을 위한 목표들이 세워지게 되였다.

기술부원 정광수, 준비중대 중대장 최창길동무들과 수리공들인 전광철, 명일순동무들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다른 기계공장에서 가공해오던 내연기관차의 기통밀관을 자체의 힘으로 재생리용할수 있는 기술혁신안과 기관차의 압력가감기를 전기공기식으로 개조하는 기술혁신안을 연구도입한 그 기세로 차륜선반을 비롯한 여러대의 설비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기술혁신안, 새로운 도금방법으로 측메달도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안들도 대담하게 제기하였다.

그들은 차바퀴용착설비를 새로 갖추도록 하기 위한 사업, 내연기관차의 고장부위에 대한 자동진단체계를 도입하여 기관차수리정비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천정기중기의 원격조종체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 등 전망적인 기술혁신목표들을 새로 내놓았다.

이렇듯 당대회보고를 깊이 학습하는 과정에 대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대담한 착상을 내놓게 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월별전투계획을 작성하고 한가지씩 모가 나게 수행해나갔다.

여기에 고무된 기관사들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진군속도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짐을 실어나르는가 하는데 절정적으로 달려있다는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증송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기관차대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제때에 널리 소개선전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세차게 분출시켜 높이세운 목표들을 하루빨리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고있다.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이곳 기관차대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마음으로 하여 결의목표도 높아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불길, 증송의 기적소리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황해북도체신관리국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학습정형을 당초급일군들을 통하여 알아본 황해북도체신관리국 초급당위원회 부위원장 한금실동무는 마음이 가벼웠다.

어느 단위나 할것없이 고전적로작에 대한 학습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던것이다.

당대회보고가 실린 당보가 도착한 날 오후 초급당위원회에서 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열고 보고학습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학습열풍을 드세게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든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리국 초급당위원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일군들이 단위들의 로작학습정형을 깊이 료해하여보니 서로 차이가 났다.

정보통신국 부문당위원회처럼 실천과 결부시켜 학습을 심도있게 조직지도하고있는 단위가 있는 반면에 독보나 연구발위에 머무르고있는 단위도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국 부문당위원회 사업에 주목을 돌렸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당대회보고를 진지하게 학습하는 과정에 작업반장 박성혁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은 70일전투의 나날 조종용정류소자를 리용한 태양전지충전조종장치를 새로 개발도입하는 등 기술혁신성과들을 거둔데 만족하지 않고 첨단돌파전의 불길높이 체신의 현대화에 적극이바지할 보다 높은 목표들을 내세웠다.

부문당위원회가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학습지도를 잘한 결과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국 부문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좋은 싹을 발견하고 학습평가의 기준을 바로 정하였다. 평가의 기준을 실천에 두었다.

그리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심화시키고있는 이곳 부문당위원회사업을 일반화하였다.

변성일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모임기회를 리용하여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시켜나가고있는 정보통신국 부문당위원회의 사업을 소개선전하면서 단위들이 적극 본받도록 하였다.

정보통신국 부문당위원회 일군들이 더욱 분발해나선것은 두말할것 없다. 이와 함께 체신관리국안의 모든 단위 당조직들이 로작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심화시키기 위한 론바람을 일으켰다.

당대회보고의 전반체계와 기본정신, 전투적과업과 방도들을 뼈와 살로 새기는 과정이 그대로 관리국안의 단위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전투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어디에 기본을 두고 학습지도를 심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이렇듯 중요하다.

본사기자 리 정 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하고있는 력포구역당위원회 일군들 본사기자 장 철 범 찍음

자강력이 투철한 사람들이 기적을 창조한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

서해의 크지 않은 수산기지인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전문적인 선박건조기지도 아닌 사업소에서 배무이기술자나 기능공들도 아닌 어로공들로 편의 및 의료봉사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봉사선을 건조하였다. 4층짜리 건물과 맞먹는 1호봉사선을 건조하였고 한번에 수백t의 연유를 수송할수 있는 2호봉사선을 건조하였으며 270hp운반선까지 완성함으로써 하나의 봉사선단이 출항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짐증어로전이 벌어지는 먼바다로 나가게 되였다.

단 몇달사이에 봉사선 두척과 운반선의 동시건조!

우리는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펼치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의 힘에 의지할 때 기적을 낳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

종업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물고기잡이며 어구의 현대화, 고기배무이 등을 70일전투계획에 반영하면서 지배인 박승입동무의 마음은 성차지 않았다. 우리 당력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치고는 목표가 너무 범상한것으로만 여겨졌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일찌기 어로공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여 력사에 없던 봉사선을 동해의 어장에 띄우도록 하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순간 그 무엇인가 지배인의 뇌리를 쳤다.

봉사선! 자체의 힘으로 멋쟁이봉사선을 뭇자. 날바다에 나가 고기잡이전투를 하는 어로공들을 위해 현대적인 봉사선을 무어 띄운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어로공들의 문명한 생활은 그대로 물고기잡이성과로 이어질것이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뜻을 한몸바쳐 충직하게 받들려는 지배인의 절실은 당조직과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총정의 7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450t급봉사선무이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온 사업소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수십명의 기능공들과 풀뜨한 청년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지배인은 돌격대원들앞에 나섰다.

《수입병에 걸린 사람,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절사관철이 있을수 없소. 우리의 자존심이고 투쟁방식인 자강력으로 절사전을 벌립시다!》

돌격대원들의 힘찬 화답소리가 부두가에 울려퍼졌다. 그것은 철야진군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구령이였고 돌격함성이였다.

당앞에 걸의한 날자까지는 시일이 너무도 긴박했다.

지배인은 두대의 능력이 큰 발동발전설비를 만가동시켜 배무이전투를 중단없이 벌릴 작전을 짤 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부두가에 쓸모없이 떼어있던 낡은 끌림배를 개조하는 방법으로 선체조립기일을 단축하고 상부조립공사를 다그칠 혁신안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낡은 끌림배를 끌어다 배올림대에 올리는 힘겨운 전투가 벌어졌다. 수백t의 중량이 나가는 낡은 끌림배는 격실마다에 흘러든 바다물이 몽땅 얼어붙어 무게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였다. 최대만조시간은 두시간, 눈보라 휘쓰는 밤 10시부터 12시사이였다. 그 시간에 배를 올리지 못하면 한달이라는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 했다.

《당기라!》

확성기를 틀어쥔 지배인의 구령이였다. 바다에서는 여러척의 큰 고기배들이 힘껏 떠밀고 부두에서는 유압식기중기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쇠마줄이 끊어질 지경으로 힘껏 끌어당기였다. 하지만 끌림배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그 몇번…

겨우 메루우의 밀차에 배의 선수꼴을 내려놓았지만 육중한 무게로 하여 침목이 죽죽 부러져나가고 메루장이 엿가락처럼 휘어들었다. 당앞에 다진 결의를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긴박한 순간이였다.

지배인이 다급히 소리쳤다.

《마줄을 더 내오시오! 모든 종업원들을 총동원할것!》

순식간에 굵은 마줄들이 부두로부터 끌림배로 떨어가고 종업원전체가 마줄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하나, 둘—》, 《영—차!》

지배인의 힘찬 구령에 따라 종업원들은 안깐힘을 썼다. 그래도 끌림배는 끄떡하지 않았다. 이제 20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말중에 어디서 더 데려올 로력도 없다.

다시 마줄을 틀어잡은 종업원들은 무섭게 용을 썼다. 기적이 일어났다. 움직일것 같지 않던 끌림배가 움찍움찍 끌려올라오기 시작했던것이다. 기회를 놓칠세라 돌격대원들이 바다물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편 솜씨로 끌림배의 선미에 큰 쟈끼들을 틀어밀었다. 전화의 나날에 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올리던 화선용사들마냥 종업원들은 결사적으로 마줄을 당기였다. 자기 힘을 믿는 강자들에 의해 마침내 끌림배가 배올림대에 올라앉고야말았다.

가공반처녀들까지 세찬 바다바람에 임김을 날리며 결사적으로 배를 끌어올리던 그 강추위와 어둠속에서 흘러간 2시간, 그러나 그것보다 간고하고 격렬한 전투는 앞에 있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봉사선을 뭇는 일은 일반고기잡이배를 뭇는 일과는 달랐다.

자재와 로력이 많이 드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였다. 리발실과 목욕탕, 식사실들은 물론 다기능화된 치료실, 실내운동실 등에 최신설비들과 기재들까지 갖추어놓아야 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4층짜리 종합적인 편의봉사건물을 건설하자 해도 아름찬데 하물며 크지 않은 수산사업소에서 봉사선을 짧은 기간에 뭇자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배인은 오랜 기능공들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직접 하면서 수시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보내준 기술자, 기능공들도 배무이전투에 합세하여 기세를 올리였다.

식사시간에도 지배인은 배무이와 관련한 기술서적들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최신기술자료들을 얻기 위해 수백리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일군들도 종업원들도 퇴근시간을 잊었고 새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낮에 이어 밤이 지새도록 하루에 수백대의 용접봉을 태우며 쉬임없이 전투를 벌렸고 종업원들은 찬바람 물아치는 바다가에서 밤을 꼬박 밝히며 두돌, 세돌을 헤제끼였다.

돌격대원들은 전화의 그날 불타는 바위에 맹세문을 써놓고 결전에로 나가던 화선용사들처럼 봉사선의 선체와 조타실벽체에 하루의 찍신향을 굵직굵직하게 써놓으며 이김없이 돌아올것을 다짐하였다. 말그대로 전투였다.

2호봉사선건조전투도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500hp이상의 기관을 설치하게 될 2호봉사선은 연유공급을 하면서 1호봉사선을 끌고다니는 끌배로 될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먼 바다에서 물고기잡이를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배들의 년간 출어일수와 어로공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어서 좋았다. 더우기 봉사선의 배기관실자리에 어머가지 공작기계와 절단기, 용접기, 연마기와 같은 설비들을 차려놓으면 현간한 배수리는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을것이였다.

사업소의 70일전투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뭘물이 질 때마다 부두앞에 드러나군 하는 감탕판에 연유공급선을 무을수 있게 콩크리트지지점들이 며칠사이에 생겨났다. 그런데 배무이가 본격화되며 육중한 무게가 실리자 지지점들이 각이하게 침하되면서 진조중의 배는 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말았다. 기존공법으로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배무이를 더이상 할수 없었다.

하지만 지배인은 기술자들과의 진지한 협의끝에 지상확대식방법으로 배무이를 계속 내밀도록 하고 현대적인 검측기재들과 제측수단들을 구입하여 사소한 편차도 없이 배무이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해나갔다.

배무이제작파정에 대한 콤퓨터모의시험을 수십차례나 먼저 진행하도록 한 일군들의 작전은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반복작업이란 말조차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단번에 성공하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밤, 지배인은 돌격대원들과 마주앉았다. 이왕 내친 걸음에 봉사선에 후방물자를 운반해줄 270hp짜리 운반선을 하나 더 뭇자는것이였다. 지배인의 말에 모두가 눈이 휘둥그래졌다.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눈빛을 지켜보던 지배인이 한마디 하였다.

《목표가 아름찰수록 분발해야지, 절사관철의 정신에 모두의 지혜를 합치면 못해낼게 뭐가 있겠소.》

용접의 화광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지배인의 근엄한 눈빛에서 드릴없는 의지를 읽은 돌격대원들이 결의해나섰다.

《봉사선 두척에 또 한척의 운반선이라. 해제낍시다. 70일전투참가자들답게 말입니다.》

결해웠게 주먹을 내흔드는 돌격대장 황정철동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돌격대원들이 목소리를 합치였다.

봉사선건조에 못지 않게 어려웠던 배진수파정이며 어느해보다 일찌기 고기배들의 출어를 보장하면서 덩지큰 과학기술보급실전설을 내밀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자강력제일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새 기적을 창조한 송일섭, 전규섭, 마황철, 염석근, 리철룡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과 종업원들의 이름은 새로 태어난 봉사선단과 더불어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배무이전투를 힘껏 떠밀어준 남포시당위원회의 김우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상급단위 일군들, 배무이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종업원가족들의 소행또한 빠짐없이 기록되어있다.

자강력을 체질화한 참된 애국자, 정신력의 강자들의 이름은 이 땅에 솟아난 자랑찬 창조물들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것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절세위인의 통일대강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총매진할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경탄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민족사적대경사, 자주적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투쟁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대회합으로 시대와 력사에 찬란히 기록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침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하신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으로서 우리 이남민중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5년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밑에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투쟁행로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휘황한 앞길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진로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것으로 하여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온 겨레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선대수령들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확고부동한 조국통일신념, 뜨거운 민족애가 맥박치는 불멸의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보고에서 천명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 방안과 방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조국통일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우리 겨레의 가장 절절한 숙망이며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도 없고 용납할수도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분렬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일구월심 높이 받들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자주통일로선과 방안, 투쟁방침과 과업들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을 집대성하고 온 겨레의 념원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불멸의 통일대강이며 조국통일3대헌장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각계각층 민중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돌이켜보면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에 명줄을 건 이남의 력대 통치배들은 겨레앞에 확약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과 합의들을 전면부정하고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제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으며 끊임없는 북침전쟁소동으로 정세를 격화시켜왔다.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무분별한 도발과 대결책동이 초래한것은 동족사이의 끊임없는 반목과 불신의 악순환이였으며 항시적인 전쟁불안과 공포였다.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자주통일로선과 방침들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관철하는 길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 평화보장과 련방제통일방안을 온 겨레의 념원과 지향,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분단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은 미국의 지배와 강점을 끝장내고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치욕스러운 외세공조놀음을 결사반대해나서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동족사이의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을 가로막는 온갖 제도적장치를 철폐하고 보수당국의 진보통일세력말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굴함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각계층 민중은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보수집권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내외에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기 위한 범국민적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이 땅에 태를 묻은 각계층 민중은 조국통일보다 소중하고 중대한 과업은 없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지역과 당파, 소속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야 할것이다.

오늘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구원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민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엄혹한 현정세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대한 태도는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지금 보수집권당국은 동족의 성의있고 아량있는 제안에 대해 무턱대고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부정하고 구태의연한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계속 추구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드러내놓고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에 매달려온 죄많은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통일의 동반자로 대해주며 서로 손잡고 통일로 나가자는 대범한 아량과 선의를 뿌리친다면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두고두고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중은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동족의 제의를 거부하고있는 보수집권패당의 반통일대결책동을 견결히 반대해나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반제민전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대도 오로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며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남녘민중의 애국적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정치세력과 각계층 민중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은 우심하고 통일의 앞길은 의연히 험난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주통일의 려명을 안아오려는 우리 반제민전과 애국민중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 우리의 앞길을 찬연히 밝혀주고있기에 삼천리강토에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은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다.

2016년 5월 21일
서 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의 담화

지금 우리 인민과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을 무한한 감격과 격정속에 받아안고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불멸의 통일대강이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애국애족의 기치이다.

여기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으며 현시기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그에 담겨진 사상의 현명성과 정당성, 뜨거운 민족애로 차넘치는 열렬한 호소성과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는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이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겨레의 세기적숙망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찬동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첫 시기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방지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와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천명,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오늘도 판문점에 모셔져있는 친필비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생과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자주통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으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실현하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환희롭고 장엄한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은 조국과 겨레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여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민족의 어버이의 가장 거룩한 한평생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버이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철저히 계승하시고 구현하시여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온 민족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완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공명정대한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며 근본방도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우리 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어 수행해야 할 력사적위업이다.

통일은 그 누가 선사하는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비로소 성취될수 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장장 70여년의 민족분렬의 력사는 오직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투쟁할 때에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자기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신심을 가지고있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못해낼것도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의지이다.

민족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수치스러운 외세공조놀음에 매달리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적인 반통일행위이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민족의 운명을 롱락하고 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외세와 그 추종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하며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자주적평화통일의 필수적전제이며 련방제방식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겨레가 지지찬동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식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도발과 항시적인 핵위협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우리 당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민족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수호하고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과 강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다.

온 겨레는 모든것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것을 우리 민족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여야 하며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의 자랑스러운 경륜과 전통을 살려 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그 억센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번영의 찬란한 앞날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진정어린 노력을 바로 보고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하고 동족대결망상을 버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

온 겨레가 지지하는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들에 대해 깊은 연구와 리해도 없이 덮어놓고 《진정성》이니, 《선전공세》니 뭐니 하며 부정하고 곡해하면서 헐뜯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동족끼리 서로 대결하지 말고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함께 써나가려는 일념에서 내민 동포애적인 선의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민족사에 두고두고 씻을수 없는 치욕과 죄악을 남기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있다.

북남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로 온 삼천리강토가 끓어번졌던 6.15시대의 벅찬 현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통일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어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하며 세기를 이어오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안아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인민과 온 겨레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통일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며 멀지 않아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해나가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될것이라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각층과 모든 해외동포들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주체105(2016)년 5월 21일
평 양

조선로동당대표단 꾸바공화국방문을 위하여

출 발

【평양 5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꾸바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빼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귀국

페오뽈도 오르띠스 쎄띠 집행위원 겸 항구로조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빼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이 21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완화에 필요한 북남군사당국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남측 군당국에 통지문 발송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최상의 현실적방책으로 제안된 북남군사당국회담은 그 절박성과 정당성, 현실성으로 하여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에서부터 군사적긴장과 충돌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어 내외의 온갖 분렬주의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마련하려는 우리 군대의 의지와 결심은 추호도 드팀없다.

우리 인민무력부는 21일 남측 군당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발발을 사전에 막는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이다.

우리는 북남군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수 있는 군사적충돌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론의하고 군사적신뢰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데 절실한 제도적, 법률적대책들을 합의하고 리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쌍방사이의 군사적신뢰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군사당국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말 또는 6월초에 편리한 날자와 장소에서 가지자는것을 제의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바라고있는가를 엄격히 지켜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빼루의 깔랴오일보사 사장 겸 책임주필 귀국

빼루의 깔랴오일보사 사장 겸 책임주필 아브라함 라미레스 리두마가 21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도착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웰남, 중국 대만지역의 대표단들이 21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이딸리아의 대표단이 왔다.

【조선중앙통신】

애 국 가 와 처 녀 력 기 선 수

２０１６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국향선수의 성과를 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밖에 없으며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는것은 체육인들의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장에서 장중하게 주악된 애국가!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이 뜻깊은 화폭에 접한 그때 크나큰 감격에 목메임을 금치 못한 사람들속에는 력기선수인 김국향동무도 있었다. 영광의 대회장에 울려퍼진 애국가를 심장으로 따라부르며 그가 흘린 눈물은 왜 그토록 뜨거웠던가.

성 장 의 자 양 분

지난 4월 어느날 ２０１６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될 우즈베끼스딴으로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실은 김국향선수는 보풀이 인 한통의 편지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너의 모습을 지켜보신다. 언제나 금메달을 쟁취하여 온 세상에 우리의 애국가를 더 높이 울려가거라. …》

몇해전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에게 보낸 마지막편지였다.

장연군에서 태여난 김국향선수는 력기선수들이였던 두 이모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력기에 남다른 취미를 붙이였다. 그 시절 어머니와 이모들에게서 배운 노래가 바로 애국가였다.

부를수록 가슴벅차오르는 뜻깊은 노래와 함께 어린 소녀의 력기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였다.

하여 평양에 있는 체육단에까지 올라가 재능의 나래를 더 활짝 펼치게 되였다.

그때 김국향선수의 눈에 비쳐든 평양은 참으로 아름다왔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수도의 모습은 그대로 애국가의 한 구절—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의 모습으로 소중히 안겨왔다.

첫 훈련을 시작하는 날 감독이 들려준 이야기에서도, 국제경기들에서 애국가를 긍지높이 터친 금메달수상자들의 긍지에 넘친 목소리에서도 그는 애국가의 의미를 다시한번 느꼈다.

그럴수록 국제경기무대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애국가를 온 누리에 더 높이 울리는 력기강자로 자랄 맹세를 억세게 가다듬으며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이렇게 애국가와 함께 키높이 성장해온 김국향선수는 마침내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경기인 제1차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위훈을 떨쳤고 애국가를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울리는 환희를 맞이하였다.

그때로부터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달리고달려온 김국향선수. 그 나날 애국가를 부르기는 쉬워도 빛내이기는 얼마나 힘든가를 더더욱 절감하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김국향선수가 강도높은 훈련에 너무 지쳐 주저앉은적이 있었다.

그때 귀전에 들려온것은 어서 힘을 내라는 김명호감독의 목소리가 아니였다.

감독이 말없이 틀고 선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 애국가였다.

…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선수는 분연히 일떠섰다.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었다.

애국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승기와 용맹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온 김국향선수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승리의 금메달들을 안아올렸다.

어머니조국은 그의 공로를 헤아려 이번 선수권대회참가를 위해 떠나기 며칠전에 공훈체육인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다. 김국향선수는 그 칭호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에 보답할줄 아는, 애국가의 참뜻을 아는 진정한 체육인이 되라는 조국의 믿음으로, 인민의 기대로 깊이 간직하였다. …

오랜 병환끝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생의 마지막시기에 보내여온 편지의 구절구절, 금메달을 쟁취하여 온 세계에 우리의 애국가를 더 높이 울려가라는 절절한 당부는 딸의 가슴속에 삶의 좌우명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당과 조국의 믿음, 인민의 기대와 함께 어머니의 당부까지 모두 안고 기어이 승리를 떨치리라.

시대의 진군가와 우승의 시상대

2016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는 우리 나라와 윁남, 타이를 포함한 ３０여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２６０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우리 나라에서 충정의 ７０일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고있던 시기인 ４월 ２３일부터 ３０일까지 진행된것으로 하여 김국향선수의 마음은 더욱 달아올랐다.

녀자력기 ７５㎏이상급경기에 참가한 김국향선수의 제일가는 경쟁자는 몸무게가 몇십㎏이나 더 많은 타이선수였다. 경기시작전에 타이선수가 신청한 무게는 김국향선수보다 더 많았다. 지난 시기 경기들에서 맞다들었던 상대방에 대한 깊이있는 파악에 기초하여 김명호감독은 타이선수의 전술에 말려들어가지 않고 본래 세운 전술대로 김국향선수가 경기를 신심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째인 전술도 선수의 강의한 정신력을 떠나 그 위력을 생각할수 없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하는 경기장에 김국향선수는 맘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나갔다. 애국으로 불타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 맥박치는 조국의 노래를.

…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리

…

애국가를 부를수록 충정의 70일전투의 마지막돌격전으로 들끓고있을 조국의 벅찬 숨결이 끝없이 파도쳐왔다. 그 숨결에 발맞추며 이 한몸 다 바쳐 기어이 승리의 금메달을 어머니당대회에 자랑찬 선물로 드리리라는 필승의 의지가 끝없이 솟구쳐올랐다.

온몸에 용솟음치는 이렇듯 비상한 정신력과 억센 힘을 보란듯이 터치며 김국향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타이선수보다 5㎏이나 더 많은 160㎏을 들어올려 우승하였고 종합에서도 영예의 1위를 쟁취하여 장중한 애국가의 선률이 울리는 속에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높이 올렸다.

외국의 한 력기전문가는 김국향선수의 모습에서 조선의 기상을 보았고 조선의 모습을 보았다고 높이 찬양하였다.

＊　　＊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뜻깊은 대회장에서 울려퍼진 애국가를 따라부르며 김국향선수가 흘린 뜨거운 눈물.

진정 그것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속에 영원한 승리의 노래 애국가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주체조선의 체육인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이 위대한 조국의 영예를 애국가와 더불어 더욱 빛내갈 뜨거운 맹세의 분출이였다.

김국향선수만이 아닌 우리 체육선수들모두가 청춘의 심장을 이렇게 불태우며 당 제7차대회결정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이 보람찬 길우에 애국가는 시대의 진군가로 더욱 높이 울려퍼지며 우리 체육인들을 체육강국의 래일을 앞당겨오는 승리와 영광의 상상봉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이다.

강 효 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빛내이며

새로 등록된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적극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전국각지 인민들의 드높은 애국의 열의속에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개성시인민위원회, 고려의학과학원 등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열의에 받들려 충정의 ７０일전투기간에만 하여도 10여개 대상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등록된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은 사회적관습과 례식 및 로동생활풍습, 전통의술, 전통음식과 식생활풍습에 해당되는 대상들이다.

사회적관습과 례식 및 로동생활풍습에 해당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서 산삼리용기술, 단군제례와 함께 고려인삼재배와 리용풍습이 등록되였다.

우리 나라의 인삼은 예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고구려사람들은 B.C. 1세기 중엽에 어린 산삼을 옮겨자래우거나 산삼씨를 받아 산지대의 나무밑에 심었으며 백제에서도 B.C. 1세기말에 산림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 산삼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인삼이라는 말은 그 모양이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에서 유래되였다.

인삼의 재배경험이 축적되고 인삼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고려시기에는 그 재배가 더 활발히 진행되였다. 특히 １１－１２세기에 인삼재배가 널리 보급되였으며 개성은 인삼재배의 중심지로 번성하게 되였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에는 전통의술에 속하는 척추변형성질병에 대한 침치료술, 대퇴골두무균성괴사에 대한 침치료술, 약침에 의한 치료법, 화침료법들도 있다.

침구술은 우리 민족이 수천년동안 병치료에 널리 적용하여온 민족의 귀중한 유산이다. 고조선때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돌침료법을 리용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력사책에 《편석》을 만들어썼다고 기록되여있다.

B.C. １０００년에는 금속침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의 유명한 의학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 나라의 의학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찌기 우리 민족문화발전과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려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침구술은 인민보건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면서 척추변형성질병, 대퇴골두무균성괴사와 같은 난치성질병치료에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과 같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있다.

전통음식과 식생활풍습에 속하는 이채로운 유산들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였다. 대표적으로 쑥떡만들기를 들수 있다.

쑥떡은 이름그대로 자연계의 쑥을 넣어 만든 떡이다.

쑥은 우리 나라의 산과 들 어디에서나 잘 자라며 그 종류도 많다. 독성분이 없어 따로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쓸수 있다.

쑥은 해열, 진통, 리뇨, 살균, 해독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폐병, 고혈압, 기관지염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

예로부터 해마다 봄철이 오면 쑥으로 만든 떡을 먹어야 그 해에 앓지 않는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집에서나 쑥떡을 만들어 먹군 하였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쑥떡은 그 가지수가 많을뿐아니라 약효가 높고 맛 또한 독특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민족적향취를 더해주고있다.

이외에도 록두지짐풍습, 과줄가공법, 동지죽풍습, 오갈피술양조방법, 단군술양조기술 등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였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10여개의 대상들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으며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흥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더욱 빛내여갈 애국의 마음을 끝없이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주 령 봉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 있는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불멸의 꽃과 더불어 이어가는 충정의 마음

혜산시 성후동 ４２인민반 로강일동무의 가정에서

해마다 뜻깊은 2월과 4월이 오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더더욱 차고넘친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그 강렬한 마음을 안고 태양의 꽃들을 더 활짝 피우며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는 가정들 가운데는 혜산시 성후동 ４２인민반 로강일, 김춘희동무의 가정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씨앗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건 태양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꽃이 피는것이다.》

이 가정에는 해마다 도에서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와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여 받은 10여개의 상장들이 있다.

그 하나하나의 상장들에 깃든 사연을 묻는 우리에게 김춘희녀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누구나 자양분이 좋아야 고운 꽃이 핀다고 말하군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대한 태양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은 우리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불탈 때, 그 충정의 열도가 온넋을 불태울 때 더욱 아름답게 피여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일기조건이 불리한 량강도에서, 그것도 2월과 4월에 가정에서 불멸의 꽃들을 활짝 피운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김춘희녀성이 불멸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재배와 관련한 도서들도 탐독하고 원예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하기를 수십수백번, 꽃의 생장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느라 아글타글 애쓴 나날은 또 얼마인가.

안해의 마음을 헤아린 남편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아들 국현이와 딸 수현이도 따라나섰다. 언제인가 스스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외할머니의 집 주변에까지 가서 꽃재배에 좋은 부식토를 구해가지고와 부모를 놀래웠다는, 무거운 부식토배낭을 메고오느라 힘이 들 때마다 불멸의 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피여나야 한다고 하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용기를 가다듬었다는 오누이였다.

그후 부모와 함께 혜산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는 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쳐갈 때에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애국의 지성을 다 바쳐갈 때에도 이들 오누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붉게 핀 불멸의 꽃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올해의 태양절에 도에서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에 내놓을 김일성화를 가꾸며 국현이가 동생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게 되는 오빠의 몫까지 합쳐 불멸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워달라고.

이렇듯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여나는 태양의 꽃, 불멸의 꽃들과 더불어 조국의 북변 량강땅의 평범한 가정에서도 충정의 대, 애국의 대가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셔갈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서 불멸의 꽃은 언제나 붉게만 피여나 더욱 찬란한 래일을 축복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수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 제７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끓어번지는 이 땅 어디서나 시대를 격동시키는 눈부신 위훈들이 창조되고 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거세찬 불길이 타오르는 려명거리건설장, 세포와 청천강 그리고 소소리높은 산정우에 철탑을 세워가는 수리개들의 일터에서도,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는 조국의 어장들에서도…

하지만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위훈보다 보이지 않는 위훈의 자욱이 더 많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명학탄광이라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탄광이다.

하지만 이곳에도 수천척지하 막장에서 남모르게 결사전을 벌린 불사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충정의 ７０일전투의 철야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지난 3월 어느날 오전 7시경.

뜻밖의 정황으로 막혀버린 탄광 1갱의 캄캄한 막장…

공기마저 희박한 막장안에는 우영철, 박인명, 리영남동무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었다.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극악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던가.

당앞에 결의다진 ７０일전투목표였다.

어둠속에 밟혀오는 7개의 빈 탄차…

마치도 그것은 채 따지 못한 화점처럼 보였고 고지우에 꽂지 못한 기발처럼 여겨졌다.

설사 몸은 이대로 땅속에 묻힌대도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캐여 조국의 밝은 빛을 더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고 생명이 경각에 이른 속에서도 이들은 증산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후 탄광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으로 갱은 복구되고 탄부들도 구원되였다.

《동지들, 이 7개의 탄차의 탄을 받아주십시오.》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목숨걸고 캐낸 석탄이였다. 그것을 당에 드리는 꽃다발마냥 정히 바치는 이들의 그 고결한 모습앞에서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키고 또 삼키였다.

7개 탄차의 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받아 육탄정신으로 캐낸 그 한줌한줌의 탄을 어찌 수자와 무게로만 헤아릴것인가.

위훈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조되는 위훈이 더 돋보이고 값높은것이다.

그것은 당에 바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깨끗한 량심과 진정이 그속에 거울처럼 비끼기때문이며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위훈들이 합쳐져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로 이어지기때문이다.

당을 받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량심.

바로 이것이 충정의 ７０일전투의 눈부신 승리들을 안아올린 밑뿌리, 당 제７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더 큰 승리의 노래를 터칠 마를줄 모르는 위훈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당과 조국을 위해 누가 보건말건 온넋을 바쳐가는 인간들의 위훈의 자욱은 어디서나 보인다. 제일 크고 아름답게 빛난다!

본사기자 전 철 호

휴 대 용 건 강 검 진 기 새 로 개 발

평 양 의 료 기 구 기 술 사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의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의학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치료예방사업에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 평양의료기구기술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휴대용건강검진기를 개발하여 내놓았다.

새로 개발한 휴대용건강검진기는 소형화된 생체신호수감장치와 손전화기에 설치하는 프로그람으로 구성되여있다. 휴대용건강검진기는 이동통신망에 의하여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손전화기로 혈액안의 산소함량과 동맥경화도를 반영하는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전도, 심박수, 체온 등의 측정자료들을 1분안에 볼수 있게 한다.

보다 중요한것은 측정결과들을 날자와 시간에 따라 도표화할뿐아니라 그라프로 현시해주기때문에 자체로 심근경색과 협심증, 뇌졸중 등을 예방할수 있게 한것이다. 휴대용건강검진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은 여러가지 생체정보자료들을 측정하는 하나로 결합된 소형화된 장치의 설계와 신호처리, 분석, 자료기지기능을 가진 손전화기용 프로그람작성 등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일군인 박사 김인철동무와 최철진, 김성식, 신충혁동무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휴대용건강검진기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개발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해결해나갔으며 끝끝내 연구과제들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완성하고 림상검토를 진행하여 효과성을 완전히 확증하였다.

충정의 ７０일전투의 불길속에서 평양의료기구기술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는 우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는 또 하나의 과학기술성과로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 혁 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명광군체신소 자동체신분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분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분소사업을 혁신해나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에 의해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분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체신분소건물을 번듯하게 꾸리고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체신현대화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후방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채 성 정

국제생물다양성의 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과 강하천류역에 분포되여있는 동식물종류와 그 서식조건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희귀한 동식물들을 비롯한 생물품종들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인간의 생존과 활동은 생물다양성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람들이 리용하는 많은 의약품, 생활용품 등은 생물에서 얻어지고있다. 또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관련된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생태계는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산업혁명이후 공업이 발전하고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였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수많은 야생동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２０１５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멸종된 생물종수는 9백여종이며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수는 2만 3천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하여 지구의 생태계가 균형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류의 생존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유엔에서는 5월 ２２일을 국제생물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호소하고있다. 또한 자연공원, 동식물보호구 등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희귀종들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올해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의 주제는 《생물다양성증시:인간과 그들의 생존유지》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히 나라의 곳곳에 있는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자원보호구 등 수많은 보호구들에 대한 관리사업과 함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늘여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심화되고있다.

우리는 생물자원보호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생물자원을 부단히 늘여나가야 할것이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주 송 이

‖ 누구나 알아야 할 우주상식(８) ‖

우 주 촬 영 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우주촬영기는 인공지구위성이나 유인우주비행체와 같은 인공천체에 설치하여 지구, 천체 및 여러가지 우주현상을 촬영하는 전자광학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우주촬영기라고 하면 지구를 촬영하는 촬영기를 말한다. 인공지구위성의 자세수감부로 리용하는 별수감부나 우주현상을 관측하는 우주망원경도 우주촬영기에 속한다.

우주촬영기는 광학계, 영상수감부, 기억장치, 신호처리장치로 구성된다.

우주촬영기에서 지상의 대상물로부터 복사된 복사에네르기는 광학계를 통하여 영상수감부에서 전기적신호로 변환된 다음 상사—수자변환기에 의하여 수자화상으로 얻어진다.

우주촬영기들은 지구자원탐사위성, 기상관측위성, 해양감시위성들에 설치된다.

우주촬영기로 촬영한 화상자료들은 국토관리, 산불 및 재해감시, 바다표면관측과 지구자원탐사, 농사작황예측, 기상예보, 지도작성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우주촬영기로 얻는 사진자료들은 포괄지역이 넓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얻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항공촬영이나 다른 방법으로 얻은 사진자료들에 비할수 없는 우점을 가진다.

우주촬영기를 개발하는데 리용되는 기술들로는 정밀광학기계기술, 집적회로기술, 콤퓨터기술, 고속자료처리 및 전송기술, 새 재료기술, 우주환경기술 등이 있다.

오늘날 우주촬영기의 분해능은 항공촬영기로 얻은 분해능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미 1m급의 위성화상자료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있으며 군사적목적이나 기타 정밀한 해석을 위하여 얻는 고분해능위성화상자료의 분해능은 수~수십㎝에 이르고있다.

또한 촬영자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수십개의 스펙트르대역을 촬영할수 있는 다스펙트르촬영기들이 개발리용되고있다.

위성촬영에서는 위성이 통과하는 지역이 아닌 장소를 촬영하기 위해 위성의 자세를 조종하거나 혹은 촬영기만을 조종하여 경사촬영을 하는 방법들도 도입하고있다.

높은 분해능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촬영을 진행하여 얻는 화상자료는 그 용량이 크므로 촬영자료를 지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자료처리기술, 압축기술, 암호화기술, 자료보관 및 전송기술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국가우주개발국 김 해 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조선옷을 더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민족의상 민예품제작소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자강의 위력으로 부정의의 광란을 짓부신다

강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알리고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렁찬 승리의 뢰성이 련속 터져오르는 속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혁명과 미래에 있어서 매우 책임적이며 결정적인 력사적시대가 도래하였다. 대회이후 주체조선은 백두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창조와 혁신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천하무적의 핵강국,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나라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국제사회의 경탄에 찬 시선이 조선으로, 조선으로 쏠리고있다.

남들같으면 상상도 못할 중중첩첩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펼쳐놓은 거창한 현실이기에 세계의 찬양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인류가 경탄하는 우리 조국의 이 격동적인 현실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선군의 위력과 천만군민의 자강력이 펼쳐놓은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정치에는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의 원리가 구현되여있으며 혁명은 오직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우리 당의 드팀없는 반제자주적립장, 혁명적원칙이 집대성되여있습니다.》

적들의 악랄한 군사적위협과 악착한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비약과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선군조선의 힘의 원천은 바로 선군과 자강력에 있다.

돌이켜보면 최후승리를 향한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려는 적대세력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소동은 극도로 필사적이였다. 여기에 온갖 어중이떠중이들까지 편승하여 우리의 앞길에 빗장을 가로지르려 하였다.

하지만 선군조선은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혁명적원칙,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부정의의 발광을 통쾌하게 짓부시며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여왔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그 누가 선사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의 강력한 군사적힘으로만 지키고 빛내일수 있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우리 민족은 지나온 력사를 통하여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에 자주권과 존엄을 짱그리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민족이였다.

하지만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일떠선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왔다. 그 길에서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으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라섰다. 조미대결구도는 핵 대 핵의 대결로 전변되였다.

군사적위협에 무자비한 반격을 가하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는 조선의 담력과 배짱에 미국은 기가 꺾이어 어쩔줄 몰라하고있으며 추종세력들은 낯색이 까맣게 질려 허둥대고있다. 이제는 오히려 북이 핵억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였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적대세력내부에서 울려나오는 판이다.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실책에 대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어느 나라도 미국에 하지 못하는 말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하여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선군조선의 담력과 배짱에 세계가 통쾌함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류정치사를 뒤바꾸어놓게 될 세계사적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속에 민족의 천만년미래와 행성의 평화를 담보하는 최고의 안전장치인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백배해지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여론은 미국의 정치군사적압력, 경제《제재》와 봉쇄가 우리에게 통할수 없게 된 근본원인은 선군정치라는 세계에 류례가 없는 독특하고 선진적인 정치군사적체제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원쑤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이 땅 어디에 가나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강성번영의 담보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백승의 보검으로 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부시고 금은보화 가득찬 전설의 나라로 불리우는 이 땅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자강의 폭풍은 경제강국의 자랑찬 래일을 안아오고있다. 지식경제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과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과 동화속의 궁전같은 애육원, 육아원, 소년단야영소, 소년궁전들이 도처에 일떠서는 등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기적과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다.

지금 맹렬한 속도로 일떠서는 려명거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떨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이다. 려명거리건설의 선로로 우리는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세상사람들은 그처럼 가혹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선, 남들같으면 몇년 지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거창한 공사들을 1년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김정은시대의 발전상》, 《세월을 따라가는 문명이 아니라 남들을 앞세나가는 초음속의 문명》이라고 하면서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전력사는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적대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과 《제재》, 봉쇄책동을 자력자강으로 처갈기며 승리떨쳐온 자랑찬 력사이다. 그 길에서 백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던 미제의 호언장담도, 3일 또는 3개월 늦어서 3년이면 조선이 무너질것이라던 적대세력의 《3, 3, 3붕괴설》도, 병진로선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던 원쑤들의 망상도 산산이 깨여져나갔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모르는 나라, 자강력이라는 무진막강한 힘을 지닌 조선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원쑤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피로써 지키고 제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와 정신력은 천파만파로 격랑을 일으키고있다.

모든것은 우리 당의 설계도와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고있으며 우리는 또다시 승리할것이다.

선군과 자력자강으로 노도쳐나아가는 인민의 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세상에 없다. 만복을 누릴 우리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허 영 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적도기네, 나이제리아, 중국 홍콩, 쿠웨이트, 벌가리아, 프랑스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와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설대표부,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에서 12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행사장들의 정면에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성원들,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였으며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실 서기국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열렬한 인사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인 조선로동당이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관철하여 당의 위력을 강화하고 조선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김정은각하는 위대한 정치가, 백승의 령장이시다, 그이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대경사이다.

선대수령들의 뜻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은 세계가 보란듯이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며 미제와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프랑스좌익급진당 국제비서,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당대회에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한 명백하며 공명정대한 로선들을 제시하시였다, 당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미래가 창창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주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주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7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결성식장정면에 모셔져있었다.

결성식에는 음푸말랑가주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주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으로 암브로쎄 음니씨가, 서기장으로 무싸웬코씨 루틀리가 선출되였다. 소조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는 뜻깊은 시기에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게 된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긍지로 여긴다.

우리는 소조활동을 통하여 조선이 어떻게 《강대성》을 뽐내던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였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승승장구할수 있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될것이다.

이 기회에 조선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소탄시험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위성발사를 단행한데 대하여 다시한번 축하한다.

결성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에게 세균 및 생화학전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룡산미군기지에서 지카비루스실험을 추진하고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여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카비루스는 열대와 아열대지역에 있는 특정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비루스로서 사람들이 그에 감염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하는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각국에서 지카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미국은 바로 이처럼 위험천만한 비루스를 남조선에 뻐젓이 끌어들여 범죄적인 세균무기개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방성이 생화학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이른바 《쥬피터계획》의 도입후보지로 서울의 룡산과 경기도 오산,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이어 부산항 8부두를 선정하였다는것이 알려져 남조선 각계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촉발시키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세균 및 생화학무기개발책동에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그 진상규명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지카비루스표본을 반입한적이 없다.》느니, 《탐지능력개량을 위한것》이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범죄적만행을 덮어버리고 내외여론의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그러한 유치하고 비렬한 궤변으로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북침핵전쟁도발책동으로도 성차지 않아 온 겨레를 세균 및 생화학전의 참변속에까지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천인공노할 흉계를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우고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하여 세균무기실험을 하고서도 《1차배달에 들어오지 않았다.》느니, 《단순실수》니 뭐니 하고 변명하였지만 무려 16차에 걸쳐 탄저균을 반입하였을뿐아니라 오래전부터 페스트균과 보툴리누스균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세균전준비를 강행한 범죄적사실이 드러나 내외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미제가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도처에 각종 세균연구소들을 설치해놓고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치사률이 높은 악성전염병을 퍼뜨리는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미국이 감행한 지카비루스실험이나 《쥬피터계획》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평화》니, 《인권》이니 하고 떠들면서 그뒤에서는 세계를 열핵전쟁, 생화학전의 대참변속에 밀어넣으려고 피를 물고 발광하고있는 인류의 극악한 원쑤가 바로 미국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해 남조선을 사람 못살 죽음의 땅으로 전락시킨 극악무도한 야만의 무리이며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균전, 생화학전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살인귀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비극은 미국이 이러한 반인륜적인 세균 및 생화학무기실험만행을 오직 남조선에서만 아무 꺼리낌없이 백주에 공공연히 계속 감행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삼천리조국강토를 핵과 생화학무기전쟁터로 만들려는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에게는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한 철추를 내려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범죄행위를 감싸주고 비호두둔해나서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이번에 폭로된 미제침략군의 세균 및 생화학무기실험만행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 남조선에서만 벌어질수 있는 또 하나의 치욕으로 력사에 기록될것이다.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북침핵전쟁과 극악무도한 생화학전흉계를 꾸미면서 그것을 실행해보려고 발광하는 미국살인마들과 그에 추종하는 친미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온 민족이 무사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신성한 조국강토를 핵전쟁만이 아닌 생화학전의 참혹한 페허지대로 만들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범죄적흉계가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이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세균 및 생화학전준비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주체105(2016)년 5월 21일

평 양

지배권유지를 노린 부산스러운 움직임

미국이 중동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해나서고있다.

지난 3월 미국부대통령 바이덴이 아랍추장국련방을 첫 방문지로 하여 중동지역 나라들을 돌아쳤다.

그는 아랍추장국련방의 한 공군기지에 배치되여있는 미군부대를 방문하여 《이슬람교국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바이덴의 아랍추장국련방행각이 있은지 한달후에는 미국무장관 케리가 바레인에 날아들었다. 만지역국가외무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케리는 《이란은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임을 세계에 증명해보이기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란을 걸고들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갔다. 이번 행각에서 오바마는 수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등 지역내에 조성된 정세에 대해 운운하면서 동맹국들과의 안전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흰소리를 쳤다.

그런가 하면 이라크에는 4월 한달사이에 국무장관 케리와 국방장관 카터, 부대통령 바이덴이 번갈아가며 찾아갔다. 실로 부산스러운 움직임이다.

이것은 오바마행정부가 복잡다단한 중동지역에 코를 들이밀고 또다시 음흉한 계책을 꾸미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현실적으로 백악관의 정객들이 가랭이에 불이 일도록 중동지역을 돌아친것은 지역내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다.

지금 중동은 각종 테로조직들이 부단히 확장되여 맹활약을 벌리는 불안정지역으로 되고있다.

이라크와 수리아일대에서 《이슬람교국가》가 방대한 테로전역을 형성하고있으며 각양각색의 무장단체들이 제나름의 목적을 내세우고 무장충돌을 빈번히 일으키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세력과 반정부세력사이의 분쟁이 격화되여 사회적안정이 극심하게 파괴되고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충돌이 매일같이 계속되고있다.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속에서 21세기의 대란으로 통칭된 오늘의 피난민사태가 초래되였다.

력사적으로 존재해온 종교적갈등과 전략적리해관계의 모순으로 지역내 여러 나라들사이에 마찰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는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중동지역의 정세가 오늘과 같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든것은 두말할것 없이 미국의 대중동지배전략의 직접적산물이다.

중동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세 지역을 련결하는 전략적요충지이며 세계최대의 원유매장지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지난 기간 중동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도발하여 류혈참극을 빚어냈으며 교파간, 정치세력간, 나라들간의 모순과 갈등을 부추겨 대립과 암투를 조성하였다. 결과 중동나라들은 분렬과 전란의 진창속에 빠져들어 헤여나오지 못하고있다.

광범한 여론들은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반테로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지역내의 안정과 평온이 파괴되였으며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조성되였다고 비난세례를 퍼붓고있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은 중동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열성》을 발휘함으로써 저들에게 돌려지는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중동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나서고있는것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날로 상실되여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최근년간 중동지역의 정세흐름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흔들어놓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겪으면서 중동지역 나라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반테로전》이 단지 지배주의적목적실현을 위한 위선적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침략적인 《반테로전》이 빚어낸 파국적후과를 뼈저리게 체험하고있는 지역나라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더욱 고조되게 되였다. 지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 미국에 랭담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게다가 《이슬람교국가》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제 리속만을 차리고있는 동안에 로씨야가 전과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로씨야의 영향력이 커가고있다. 로씨야와 이란, 수리아는 반테로활동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간섭을 배척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한 외교인물은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제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나가다가는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백악관도 이에 대해 커다란 위구심을 가지고있다. 대통령과 부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꼬리를 물고 중동행각에 나선것도 그때문이다.

미행각자들의 중동행각이 기울어진 《초대국》의 지위를 얼마나 부지해줄수 있겠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명백한것은 미국의 지배주의적야망에는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이다.

침략과 간섭, 강권과 전횡으로 전세계를 예속시키려고 발광하는 미국이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진정한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철 혁

조 선 에 대 해 말 하 다

미국언론들의 위험한 대조선외곡선전을 폭로한 미국정치분석가의 글

미국의 정치분석가이며 운동가인 케일레브 모핀의 글 《조선에 대해 말하다》가 3일 로씨야 인터네트신문 《신동방관찰》에 게재되였다.

글은 다음과 같다.

나자신과 나의 정치적견해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종종 로골적인 질문을 들이대군 한다.

《당신은 북조선을 지지하는가?》

그때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나는 다만 전조선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조선관으로 나는 미국의 일반대중은 물론 운동가들, 좌익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속에서조차 조선과 그 력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오해가 존재한다고 본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때마다 이러한 오해는 더욱 심해지는듯싶다.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뻔뻔스럽게 외곡보도하고있다.

조선은 왜 분렬되였는가

지난 세기초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점되였다.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헤아릴수 없이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렀다.

조선의 평화적주민들이 1919년 3월 일본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벌렸을 때 일본군은 시위자들중 7 000여명을 학살하였다.

일본군은 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들에 닥치는대로 불을 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시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수백명의 조선어린이들이 불에 타죽었다.

반일항쟁운동과 련관되여있다는 혐의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체포되여 고문을 받았다.

이 투쟁이 실패로 끝난 후 조선인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본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1920년대부터 김일성주석께서 일본강점자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시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조선반도의 남반부는 미군이 점령하였다.

남반부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였으며 리승만이 권력을 잡고 모든 반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리승만《정권》은 미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있었다.

제주도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여 리승만《정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미군은 리승만세력에 합세하여 수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조선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북반부에 있는 1층이상의 건물들을 모조리 폭격하였으며 저수지들을 파괴하여 민간지역들이 대규모큰물피해를 입게 하였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은 체결되였으나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있다. 조선전쟁은 기술적으로 의연 지속되고있으며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남조선은 《민주화》된 사회인가

1945년이후부터 오늘까지 조선반도의 남반부는 많은 경우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통치되여왔다.

현 《대통령》 박근혜는 남조선의 이전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박정희는 수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주범일뿐아니라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집단적처벌과 보복, 여러 형태의 고문방법사용 등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들을 조장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자신을 독재적인 행위들과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와 구별하려는 태도를 전혀 엿보이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야당이라고 할수 있는 통합진보당은 《정부》에 의해 2014년말에 강제해산당하였으며 통합진보당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미국 대 조선과의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한 가상적인 담화가 기록된 록음물에 기초하여 내려졌다 한다.

억압적인 사회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언론들은 빈번히 남조선을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보도하고있다.

미국언론들이 덮어놓는 북조선의 실상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미국주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터무니없는 선전으로 습관적으로 거부하고있다.

영국 BBC방송의 웨브싸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다.

《한때 북조선의 계획경제는 활발히 운영된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립초기에 놀랄만 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참혹하였던 1950년-1953년 조선전쟁이후 해마다 약 20%, 지어 30%까지의 경제장성률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말에 이르러 남조선은 북의 〈경제기적〉의 그늘밑에서 기를 펴지 못하였다.》

미국이 실시한 제재는 사실상 북조선이 국제시장들에서 상품을 구입할수 없게 하였다.

조선인들은 1990년대에 겪은 위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묘사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경제군사적으로 봉쇄한 미국을 비난하였다.

실지로 1990년대에 북조선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아마도 다른 정권이였다면 그러한 압력속에서 필경 붕괴되였을것이다.

군사는 조선의 제일국사로 되고있으며 18살이상의 거의 모든 조선인들은 여러 형태로 군사에 참여하고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조선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미국과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만명의 미군무력이 남조선에 배치되여있으며 조선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핵무기보유가 자기 나라의 안전을 더욱 담보해준다는것이 북조선주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조선이 핵폭탄을 보유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이 자주 거론하군 하는 《정권교체》나 무력침공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은 조선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것으로 된다.

조선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무장된 국가》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있다.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로서 조선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있다.

극악한 환경속에서도 조선이 생존할수 있은것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실력과 함께 령도력이 있기때문이다.

미국언론들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은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국제적련대성을 표시한 나라라는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조선은 1970년대에 미국흑인팬서당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팔레스티나인들에게도 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조선은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을 도와 영제국과 《로데시아》로 불리운 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여 싸웠다. 조선은 포르투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앙골라인민들도 도와주었다.

인종차별적폭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증오심》, 이것은 미국사회에서 거의나 강압적인것으로 된듯싶다.

미국언론들은 사실과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반공화국선전들을 빈번히 반복보도하고있다.

헐리우드는 조선과 그 주민들을 《악마화》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영화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미국사회가 전쟁을 위한 정신적준비를 갖추도록 충동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와 관련된 모든 외곡된 자료들은 리성을 가진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한것이다.

지금까지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든 정당들이 참여할수 있는 전조선적인 선거를 원하고있으며 동시에 미군무력의 철수를 바라고있다.

이것은 절대로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제안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요구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한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여기에 《극단적》이고 《이상》하며 《광기》적인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조선인들은 외세로 인해 한세기나마 분렬과 좌절, 혹독한 굴욕을 당해온 사람들이다.

극도의 기만과 인종적우월감으로 조선반도정세에 대해 외곡선전하는 미국언론들이야말로 국제적인 폭력행위들의 근원이다.

【조선중앙통신】

ㄱ-61083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